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영 분⁺

(건국대학교)

최 승 희⁺⁺

(평택대학교)

송 인 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률표집을 한 300명의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조사결과,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복지욕구는 정신건강이 나쁠수록,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국민모임참여가 없는 경우에 높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욕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교육욕구는 필리핀, 중국(한족) 출신이주여성이 낮았고, 가족이해정도가 낮을수록 욕구가 높았다. 취업알선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 국적, 지역사회 자원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제어 : 농촌, 결혼이주여성, 복지욕구, 정신건강, 신체건강, 국적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주저자

++교신전자

1. 서론

농촌의 국제결혼 현황과 이주여성들의 거주실태를 보면 이미 농촌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본국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 도약의 꿈을 꾸며 정착한 농촌에서의 삶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녹록치 않다. 특히 농촌이주여성들은 3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거주하는 점, 여성, 그리고 이주자가 그것이다. 또한 도시보다는 농촌이 가부장적 생활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였지만 우리사회는 미처 이주여성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늘어나는 이주여성들만큼 이들의 부적응과 정착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인 언어문제,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 측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붙고, 이주여성들은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쇼핑한다는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주여성들의 중복수혜, 천편일률적인 이주여성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지원과 예산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경향신문, 2008.4.22; 중앙일보, 2008. 3.14) 결국 이주여성 대상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100개소에 이르며,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년 수가 증가하면서 자녀문제, 부부문제, 가족문제 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욕구도 생겨나서, 기존의 다문화가족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양적인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이용자들의 각각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근거나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과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적지 않은 예산과 재정적 후원을 투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주요연구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한국어, 요리강습,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과 서비스 운용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연령 및 지역 차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빈도분석이나 집단비교를

통해서 제시하였거나, 일부지역에 매우 국한된 욕구실태조사를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전국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표집을 하여 사례를 확보하고, 이주여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욕구 별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들의 욕구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김유경 외, 2008; 신승연 외, 2007; 설동훈 외, 2006) 한국어교육 및 자녀양육·교육과 관련한 욕구이외에 남편과의 관계는 부부갈등과 문제행동상당으로 나누어서 욕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전문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치료의 필요성을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서(전혜정 외, 2009; 박근우, 2007; 김오남, 2007) 어떤 특성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정신건강상당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몇 년 전만 해도 수혜자라면 머물던 이주여성들이 스스로도 사회참여나 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여성신문, 2009. 7; 충청일보, 2010. 2) 사회참여의 욕구도 파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복지욕구에 이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자국민모임참여, 지역사회자원의 수준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무작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집중과 선택을 통해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이용·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 2)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

2008년도에 제정되어 2010년도 1월에 일부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욕구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법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지원, 아동보육·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다문화이해 및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수사업¹⁾과 선택사업²⁾으로 구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와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보다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한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나 조사 대상자들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1)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2) 정서지원,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서 전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힘든 경향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복지욕구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19.0~79.5% 사이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이용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53.1~79.5%로 과반수이상의 이용비율을 보였으나,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이용비율이 각각 21.8%, 19.0%로 저조하였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등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80.7%로 높은 편이었으나,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은 동 비율이 각각 45.5%, 48.5%로 낮았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매스컴(SBS TV, 2010.3: www.china.naeil.com, 2010.1: 연합뉴스, 2010.1)과 상담사례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의 폭력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난 3년간 운영실적에 따르면, 가족 및 부부갈등이 총 상담 사례수의 23%이며, 가정·성폭력은 9%였다(news1s, 2009.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소수자로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양성평등의 가족관계를 누리도록 남편들에 대한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이주여성의 부부관계갈등의 주요요인이 시부모, 가족 외 구성원으로 인한 것이고, 부양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이주여성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높으며,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라는 응답이 높았기 때문에(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남편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도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취업교육 및 알선욕구는 경제적 신분상승의 꿈을 안고 온 이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벌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필요(친정에의 송금, 자녀교육)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전북발전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가 결혼이주여성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이 '취업·직장문제'와 '자녀양육·교육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순이었다(복지타임즈, 2009.6). 취업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위해서 절실하나 언어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보다 현재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머무는 수준이어서 이들에게 취업은 매우 절실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담욕구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혼, 취업 및 임금관련 부당한 처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얻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3년간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도 법률상담 이용률이 15.9%로 가장 높았다(서울신문, 2009).

최근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 사회활동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영분 외,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택사업 중 정서지원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의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여성신문, 2009. 7: 충청일보, 2010. 2)과 이주여성들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준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활동을 고무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수혜자로서 머물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설동훈 외(2005)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10.2%에 머무는 등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원이 이주여성들에게 매우 절실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남편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건강, 한국어 및 문화체험의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더하여 취업, 법률, 지역사회참여, 경제적 지원 등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복지욕구 관련 변인

우리나라에 갓 시집온 이주여성들에게 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한국어교실, 문화체험(요리교실) 정도이며,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는 자녀상담이나 교육, 양육 등의 정보제공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때로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욕구에 따라서 상담 등이 제공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입국 시기나 자녀 수 등에 근거해서만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두고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복지욕구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욕구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결혼주기별, 연령별, 소득별로 서비스 욕구와 적응의 차이를 빈도분석³⁾과 카이검증, 집락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김유경 외, 2008; 설동훈·윤홍식, 2008). 이를 볼 때,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결혼기간, 소득은 복지욕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국제결혼 초기단계에는 일본, 필리핀 출신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러시아 출신의 이주여성들의 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적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도(정기선, 2007), 남편 및 경제관련 스트레스(김세아, 2008), 결혼의 안정성(김두섭·이명진, 2007)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부부행복감에서 국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양순미, 2007). 설동훈·윤홍식(2008)은 몽골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은 반면에, 농촌에 사는 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적에 따라서 다른 적응양상과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요인은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다. 신체 건강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전반적인 삶의 동기화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는 복지욕구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전혜정 외, 2009; 박근우, 2007; 김오남, 2007)에서 이주여성의 우울수준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보고함에 따라 정신건강이 이주여성의 삶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

3)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3.4%로,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가 59.8%,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10.7%였다. 또한 4~6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으로 보인다.

남편과 가족의 지지와 이해는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 및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요인(손병돈, 2008; 김오남, 2006)이다. 그러므로 남편 및 가족들의 태도는 이주 여성의 복지욕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남편과 가족의 비협조와 몰이해를 들고 있다(이영분 외, 2010; 김유경 외, 2008). 김갑현(2007)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시간부족 다음으로 가족들의 비협조라고 하였다. 이처럼 남편과 가족들의 반대는 이주여성의 서비스 욕구를 저하시키고, 이용에도 큰 제한요인이 된다. 이는 2008년도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과 지원이 1순위(전체 5.7%, 농촌 18.9%)라고 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남편과 가족의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정도는 이주 여성의 복지욕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한국어 수준은 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주여성의 한국어수준이 높아지면 복지욕구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복지욕구가 달라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문화적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양순미·정현숙, 2006; 김나영, 2007; 전해정 외, 2009) 손병돈(2008)·권복순·차보현(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이주여성들에게 본국출신의 이주여성들과의 교류는 중요한 정서적 및 정보적 지지를 얻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자국민출신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지역주민과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높은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주여성에게 농촌 특유의 인심과 정을 제공해줌으로써 정서적지지 및 실제적인 삶의 정보와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한국인 이웃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결혼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최경숙, 2006; 노유성, 2004). 그러므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느냐는 지역사회의 적응뿐만 아니라 지역서비스에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접근성은 농촌은 여전히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 및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이 취약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김갑현, 2007). 복지 및 문화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므로 이와 관련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Bradshaw, 1977) 시설접근성은 특히 농촌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경제수준, 남편이해정도, 가족이해정도, 지역소속감,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국어수준, 자국민모임참여, 시설접근성 등 총 13개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조사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베트남, 중국(한족),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필리핀, 몽골,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포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고, 이들로 모집단을 축소할 경우 전체 모집단⁴⁾은 약 34,873명 정도였다. 출신국적별로 표본을 50명씩 균등하게 배정하였으며, 표본배분의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각 출신국적별 50명을 4개 권역별 결혼이민자 구성비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였다.

<표 1> 표본배분결과

| 권역 | 베트남 | 중국 | 한국계 중국인 | 필리핀 | 몽골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 총합계 |
|-----|-----|----|---------|-----|----|-------------|-----|
| 수도권 | 7 | 19 | 21 | 10 | 18 | 17 | 92 |
| 충청권 | 12 | 14 | 14 | 18 | 15 | 17 | 90 |
| 영남권 | 21 | 8 | 6 | 6 | 7 | 7 | 55 |
| 호남권 | 10 | 9 | 9 | 16 | 10 | 9 | 63 |
| 총합계 | 50 | 50 | 50 | 50 | 50 | 50 | 300 |

※ 수도권(경기,인천), 충청권(충남,충북,강원), 영남권(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 호남권(전남,전북,제주)

2) 조사범위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별·광역시에 소속된 행정자치구(區)와 군(郡)은 도심지역으로 규정하여 농촌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도 경기도 고양시 등 총 25개 시(市)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지역에서

4) <표 2>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분포

| 권역 | 베트남 | 중국 | 한국계 중국인 | 필리핀 | 몽골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 기타 | 총합계 |
|-----|-------|------|---------|------|-----|-------------|------|-------|
| 수도권 | 2170 | 3597 | 2483 | 534 | 285 | 151 | 749 | 9969 |
| 충청권 | 3534 | 2441 | 1658 | 951 | 255 | 153 | 327 | 9319 |
| 영남권 | 6053 | 1407 | 661 | 330 | 122 | 63 | 324 | 8960 |
| 호남권 | 2830 | 1533 | 1037 | 836 | 165 | 84 | 140 | 6625 |
| 총합계 | 14587 | 8978 | 5839 | 2651 | 827 | 451 | 1540 | 34873 |

※ 수도권(경기,인천), 충청권(충남,충북,강원), 영남권(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 호남권(전남,전북,제주)

제외하고, 본 조사에서는 나머지 133개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를 농촌지역으로 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지 구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독립변수 설명

조사대상자인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전 국적, 결혼기간, 경제적 수준 등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범위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3〉 독립변수 설명

| | 변수명 | 범위 | 변수설명 |
|----|----------|-----|---|
| 1 | 연령 | 1-4 | 1:25세미만 2:25-29세 3:30대 4:40대 |
| 2 | 교육수준* | 1-3 |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이상 |
| 3 | 결혼 전 국적* | | 중국(한족)/중국(한국계중국인)/베트남 몽골/필리핀/러시아 |
| 4 | 결혼기간 | 년수 | |
| 5 | 경제적 수준 | 1-4 | 1:150만원미만 2:150-200만원 3:200-300만원 미만 4:300만원이상 |
| 6 | 남편이해정도 | 1-5 | 1:이해매우낮음~5:이해매우높음 |
| 7 | 가족이해정도 | 1-5 | 1:이해매우낮음~5:이해매우높음 |
| 8 | 지역사회소속감 | 1-5 | 1:매우낮음~5:매우높음 |
| 9 | 신체건강 | 1-5 | 1:매우좋지않음~5:매우 좋음 |
| 10 | 정신건강 | 1-5 | 1:매우좋지않음~5:매우 좋음 |
| 11 | 한국어수준 | 1-5 | 1:매우못함~5:매우잘함 |
| 12 | 자국민모임참여* | 1-2 | 1:참여하지않음~2:참여함 |
| 13 | 시설접근성 | 1-7 | 문화·체육·복지·의료 시설 수의 합 |

* 표시는 가변수 처리된 변수임.

본 분석을 위해 자료형태가 범주형 독립변수인 결혼 전 국적, 학력, 자국민 모임참여는 가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범주 값의 존재여부에 따라 '1'과 '0'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본 분석에의 범주형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4〉 가변수 처리된 변수

| 변수명 | 가변수 | 값 | 변수명 | 가변수 | 값 |
|-----------|----------|------------|-------------|----------|----------|
| 결혼전 국적 | DUMDE9_1 | 중국(한족) | 자신의 학력 | DUMDE6_1 | 중졸이하 |
| | DUMDE9_2 | 중국(한국계중국인) | | DUMDE6_2 | 고졸 |
| | DUMDE9_3 | 베트남 | | - | (전문)대졸이상 |
| | DUMDE9_4 | 몽골 | 자국민 모임참여 | DUMQ23_1 | 참여경험없음 |
| | DUMDE9_5 | 필리핀 | | - | 참여경험있음 |
| | - | 러시아 | | | |

(2) 종속변수

복지욕구 관련 문항은 총 14문항으로서, 부부, 가족, 자녀, 한국생활, 건강, 취업, 법률, 지역사회참여, 경제 영역이며, 각 문항은 필요여부, 이용여부, 서비스 만족정도로 구성되었다. 필요여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이용여부는 이용경험 유·무로, 서비스 만족정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의 3점 척도로 측정된다. 총 복지욕구는 14개 하위복지욕구의 합을 의미한다.

〈표 5〉 복지욕구설문 하위영역

| 복지욕구 항목 | 문항수 | 복지욕구 항목 | 문항 수 |
|----------------------|-----|-------------|------|
| 부부(부부관계, 남편문제행동)상담 | 2 | 취업(교육, 알선) | 2 |
| 가족(남편 외 가족관계갈등)상담 | 1 | 법률상담(국적,이혼) | 1 |
| 자녀(자녀양육, 자녀갈등)상담 | 2 | 사회참여 | 1 |
| 한국생활(한국어, 요리 및 문화체험) | 2 | 경제적 지원 | 1 |
| 의료서비스 및 정신건강상담 | 2 | | |
| 총 문항수 | | 14 | |

4)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방법(stepwis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복지욕구(14종서비스)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경제수준, 남편이해정도, 가족이해정도, 소속감,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국어수준, 자국민모임참여, 시설접근성 등 총 13개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11.0 version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변수선택 단계에서 회귀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4.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37%(111명)로 가장 많고, 25-29세가 30%(90명), 25세미만이 20.7%(62명)이다. 또한 학력별 특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50.7%(152명)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졸업이 29.3%(88명), 중학교 졸업 이하가 19%(57명)이다.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30.7%(92명)로 가장 많고, 충청권 거주자가 30.0%(90명), 호남권 거주자가 21.0%(63명)이다. 또한 거주 지역별 특성은 경기도 거주자가 30.7%(92명)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거주자가 13.7%(41명), 충청남도 거주자가 12.7%(38명)이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 최초 입국한 시기를 살펴보면, 2007~2008년에 입국한 자가 32%(96명)로 가장 많고, 2005~2006년 입국자가 29.7%(89명), 2002년 이전에 입국한 자가 19%(57명)이다. 또한 결혼 전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여성이 17.3%(52명), 러시아와 한국계 중국인 여성이 17%(51명)이다. 이는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의 국적을 비례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63.0%(189명)로 가장 많고, 블루칼라 직업⁵⁾을 가진 여성이 29.7%(89명)이다. 또한 소득수준별 특성은 150~200만원미만이 27.7%(83명), 150만원 미만이 27.3%(82명), 200~300만원 미만이 27.0%(81명)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 | 사례수(명) | 구성비(%) | 구 분 | | 사례수(명) | 구성비(%) |
|-----|--------|--------|--------|-----|--------|--------|--------|
| 전 체 | | 300 | 100.0 | 전 체 | | 300 | 100.0 |
| 연령 | 25세미만 | 62 | 20.7 | 학력 | 중졸이하 | 57 | 19.0 |
| | 25-29세 | 90 | 30.0 | | 고졸 | 152 | 50.7 |
| | 30대 | 111 | 37.0 | | 전문대졸이상 | 88 | 29.3 |
| | 40세이상 | 37 | 12.3 | | 무응답 | 3 | 1.0 |
| 권역 | 수도권 | 92 | 30.7 | 거주지 | 경기 | 92 | 30.7 |
| | 충청권 | 90 | 30.0 | | 강원 | 20 | 6.7 |
| | 영남권 | 55 | 18.3 | | 충북 | 32 | 10.7 |
| | 호남권 | 63 | 21.0 | | 충남 | 38 | 12.7 |
| | | | | | 전북 | 22 | 7.3 |
| | | | | | 전남 | 41 | 13.7 |
| | | | 경북 | 27 | 9.0 | | |
| | | | 경남 | 28 | 9.3 | | |

5)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 | | | | | | | |
|---------|-------------|-----|------|--------|-------------|----|------|
| 최초입국 시기 | 2002년이전 | 57 | 19.0 | 결혼전 국적 | 중국(한족) | 49 | 16.3 |
| | 2003년-2004년 | 40 | 13.3 | | 중국(한국계중국인) | 51 | 17.0 |
| | 2005년-2006년 | 89 | 29.7 | | 베트남 | 52 | 17.3 |
| | 2007년-2008년 | 96 | 32.0 | | 몽골 | 48 | 16.0 |
| | 2009년 | 18 | 6.0 | | 필리핀 | 49 | 16.3 |
| | | | | | 러시아 | 51 | 17.0 |
| 직업 | 농/임/수/축/원예업 | 10 | 3.3 | 소득 수준 | 150만원미만 | 82 | 27.3 |
| | 자영업 | 3 | 1.0 | | 150-200만원미만 | 83 | 27.7 |
| | 블루칼라 | 89 | 29.7 | | 200-300만원미만 | 81 | 27.0 |
| | 화이트칼라 | 9 | 3.0 | | 300만원이상 | 45 | 15.0 |
| | 가정주부 | 189 | 63.0 | | 무응답 | 9 | 3.0 |

2) 복지욕구 및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 현황

결혼이주여성의 복지 욕구에 대해 종합한 결과, '한국어 교육'(71.7%)과 '문화체험교육(요리, 예절, 명절 등)'(70.6%)에 대한 복지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신체건강)'(68.3%), '취업교육'(58.7%), '생계비지원'(5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언어·신체폭력, 알코올중독)'(32.7%), '부부관계 상담(부부갈등, 성생활)'(32.7%), '남편 외의 가족관계 상담(고부 및 동거가족 갈등)'(34%) 등은 상대적으로 복지 욕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복지 욕구 및 서비스이용/만족도

| 영역 | 내 용 | 필요여부 | | | | | 이용 여부 | 서비스 만족정도 | | | X ² (6) |
|----|------------------------------|---------|---------|------|----------|----------|-------|----------|------|------|--------------------|
| |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보통 | 다소 불필요하다 | 전혀 불필요하다 | 이용 | 만족 | 보통 | 불만족 | |
| 부부 | 1) 부부관계상담 (부부갈등,성생활) | 16.0 | 16.7 | 30.7 | 20.0 | 16.7 | 9.3 | 50.0 | 46.4 | 3.6 | 29.951* |
| | 2) 남편문제행동 상담 (폭력, 알코올중독) | 16.0 | 16.7 | 27.3 | 18.7 | 21.3 | 5.0 | 40.0 | 46.7 | 13.3 | 13.072* |
| 가족 | 3) 남편외 가족관계상담 (고부 및 동거가족 갈등) | 16.0 | 18.0 | 29.7 | 21.0 | 15.3 | 7.3 | 36.4 | 63.6 | 0 | 7.312 |
| 자녀 | 4) 자녀양육/교육 방법 | 33.0 | 23.7 | 24.0 | 11.3 | 8.0 | 16.3 | 55.1 | 40.8 | 4.1 | 5.736 |
| | 5) 자녀관계(자녀갈등) | 25.7 | 22.0 | 26.7 | 14.0 | 11.7 | 11.7 | 57.1 | 42.9 | | 5.919 |
| 한국 | 6) 한국어교육 | 47.7 | 24.0 | 17.0 | 10.0 | 1.3 | 39.3 | 72.9 | 22.9 | 4.2 | 6.410 |

단위(%)

| | | | | | | | | | | | |
|----------|-----------------|------|------|------|------|------|------|------|------|------|---------|
| 생활 | 7) 문화체험교육 | 43.3 | 27.3 | 19.3 | 8.3 | 1.7 | 33.7 | 72.3 | 23.8 | 4.0 | 9.70* |
| 건강 | 8) 의료서비스 (신체건강) | 39.0 | 29.3 | 20.7 | 8.0 | 3.0 | 24.0 | 65.3 | 27.8 | 6.9 | 4.284 |
| | 9) 정신건강상담 | 22.3 | 24.7 | 28.7 | 15.3 | 9.0 | 9.7 | 51.7 | 44.8 | 3.4 | 4.113 |
| 취업 | 10) 취업 교육 | 28.0 | 30.7 | 21.3 | 12.7 | 7.3 | 12.0 | 41.7 | 52.8 | 5.6 | 9.498 |
| | 11) 취업 알선 | 29.0 | 27.0 | 24.0 | 13.7 | 6.3 | 14.3 | 34.9 | 53.5 | 11.6 | 11.32 |
| 법률 | 12) 법률상담(국적/이혼) | 25.7 | 21.7 | 26.7 | 14.0 | 12.0 | 7.3 | 54.5 | 40.9 | 4.5 | 15.898* |
| 사회 참여 | 13) 자원봉사활동참여 | 22.7 | 18.7 | 37.0 | 12.0 | 9.7 | 4.7 | 35.7 | 50.0 | 14.3 | 8.994 |
| 경제 | 14) 생계비지원 | 32.7 | 23.7 | 25.7 | 8.3 | 9.7 | 8.0 | 58.3 | 25.0 | 16.7 | 6.370 |

*p<0.05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종합해보면, '한국어교육'에 대한 서비스 경험률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문화체험 교육(요리, 예절, 명절 등)'(33.7%), '의료서비스'(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국민을 위한 통역 도우미)'(4.7%),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5.0%),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담(고부 및 동거가족 갈등)'(7.3%), '법률상담(국적, 이혼)'(7.3%) 등은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어 교육'(72.9%), '문화체험 교육(요리, 예절, 명절 등)'(72.3%), '의료서비스'(6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알선'(34.9%),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국민을 위한 통역 도우미)'(35.7%), '남편 외의 가족관계 상담(고부 및 동거가족 갈등)'(36.4%)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3) 복지욕구 영향 요인

14개의 복지욕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13개의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부관계 상담(부부갈등, 성생활)

부부갈등, 성생활 등 부부관계 상담에 대한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고졸', '지역사회참여', '중국(한국계중국인)', '몽골', '신체건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 < 0.05$). 6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6.8%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76.248 - 0.703 \times \text{정신건강} - 0.703 \times \text{고졸} + 10.448 \times \text{자국민모임참여} - 14.003 \times \text{중국(한국계중국인)} -$

- 6) 이용여부에 따른 욕구에 대한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관계상담, 남편문제행동상담, 문화체험교육, 법률상담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이용여부가 욕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욕구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보고자한 것이므로 서비스이용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논의 및 결론에서 설명하였다.

15.181×몽골 + 0.353×신체건강'이다.

정신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복지욕구가 높은 반면, 고졸학력일수록, 중국(한국계중국인), 몽골 출신 이주여성은 복지욕구가 낮았다. 신체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자국민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복지욕구는 증가하였다. 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진희·박옥임, 2008; 손병돈, 2007)를 고려할 때, 학력이 높은 이주여성들이 부부관계상담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한국계중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장애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는 타 국적출신에 비해서 욕구가 낮은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몽골 출신이주여성들의 결혼경로가 타 국적에 비해서 연애결혼인 비중이 높은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이영분 외, 2010; 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정기선, 2008). 또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에 부부관계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 부부관계상담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결과

| 모형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부부관계 상담욕구 | (Constant) | 76.248 | 6.931 | | 11.002 | 0.000 |
| | 정신건강 | -0.703 | 0.155 | -0.430 | -4.535 | 0.000 |
| | 고졸 | -9.673 | 3.579 | -0.150 | -2.703 | 0.007 |
| | 자국민모임참여 | 10.448 | 3.596 | 0.162 | 2.906 | 0.004 |
| | 중국(한국계중국인) | -14.003 | 4.791 | -0.166 | -2.923 | 0.004 |
| | 몽골 | -15.181 | 4.985 | -0.173 | -3.045 | 0.003 |
| | 신체건강 | 0.353 | 0.145 | 0.231 | 2.424 | 0.016 |
| R(R ²) | 0.168(0.149)* | | | | | |

*p<0.05 **p<0.01 ***p<0.001

(2)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언어 · 신체폭력, 알코올중독)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복지욕구 회귀모형은 '몽골', '정신건강', '고졸', '연령', '신체건강', '자국민모임참여' 변수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p<0.05). 6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5.2%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회귀모형식은 $\hat{Y} = 85.303 - 20.644 \times \text{몽골} - 0.630 \times \text{정신건강} - 9.426 \times \text{고졸} - 0.527 \times \text{연령} + 0.349 \times \text{신체건강} + 7.783 \times \text{자국민모임참여}$ 로 추정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복지욕구는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몽골 국적, 고졸학력 여성인 경우에는 복지욕구가 떨어졌다. 한편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자국민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은 자국민모임에 참여하면서 부부관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에 대한 다양한 조언, 생활상의 정보 등을 접하게

되고, 정서적 지지와 힘을 얻게 된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원조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2〉 남편문제행동 상담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남편문제 행동상담 욕구 | (Constant) | 85.303 | 10.869 | | 7.849 | 0.000 |
| | 몽골 | -20.644 | 5.138 | -0.226 | -4.018 | 0.000 |
| | 정신건강 | -0.630 | 0.163 | -0.370 | -3.855 | 0.000 |
| | 고졸 | -9.426 | 3.756 | -0.141 | -2.510 | 0.013 |
| | 연령 | -0.527 | 0.263 | -0.112 | -2.006 | 0.046 |
| | 신체건강 | 0.349 | 0.153 | 0.220 | 2.282 | 0.023 |
| | 자국민모임참여 ⁷⁾ | 7.783 | 3.759 | 0.116 | 2.071 | 0.039 |
| R(R ²) | 0.152(0.133)* | | | | | |

*p<0.05 **p<0.01 ***p<0.001

(3) 남편 외의 가족관계 상담(고부 및 동거가족 갈등)

남편 외의 가족관계 상담욕구 영향요인의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베트남', '몽골', '중국(한국계중국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4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1.4%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75.206 - 0.358 \times \text{정신건강} + 9.596 \times \text{베트남} - 14.407 \times \text{몽골} - 11.877 \times \text{중국(한국계중국인)}$ 으로 나타났다.

남편 외의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복지욕구는 이주여성이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았다. 한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복지욕구는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몽골, 중국(한국계중국인)출신 이주여성은 낮은 욕구수준을 보였다. 김유경 외(2008)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타 국적에 비해서 중국출신(한국계중국인)이주여성의 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남편외의 가족관계에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배경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 연구결과를 볼 때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7) 자국민모임참여 가변수는 참여없음:1, 참여함:0 으로 처리되었음.

〈표 8-3〉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담 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담욕구 | (Constant) | 75.206 | 6.384 | | 11.780 | 0.000 |
| | 정신건강 | -0.358 | 0.091 | -0.223 | -3.934 | 0.000 |
| | 베트남 | 9.596 | 5.212 | 0.109 | 1.841 | 0.067 |
| | 몽골 | -14.407 | 5.107 | -0.167 | -2.821 | 0.005 |
| | 중국(한국계중국인) | -11.877 | 4.917 | -0.144 | -2.416 | 0.016 |
| R(R ²) | 0.114(0.101)* | | | | | |

*p<0.05 **p<0.01 ***p<0.001

(4)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양육 및 교육방법에 대한 복지욕구 영향요인의 회귀모형에서는 ‘연령’, ‘베트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2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1%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86.603 - 0.768 \times \text{연령} + 11.963 \times \text{베트남}$ 이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았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연령대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 이후에 입국 수⁸⁾가 증가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해당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4〉 자녀양육 및 교육 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자녀양육/ 교육방법 욕구 | (Constant) | 86.603 | 8.608 | | 10.061 | 0.000 |
| | 연령 | -0.768 | 0.267 | -0.173 | -2.878 | 0.004 |
| | 베트남 | 11.936 | 5.300 | 0.135 | 2.252 | 0.025 |
| R(R ²) | 0.061(0.054)* | | | | | |

*p<0.05 **p<0.01 ***p<0.001

(5) 자녀와의 관계(자녀갈등)상담

자녀와의 관계(자녀갈등)상담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연령’, ‘정신건강’, ‘필리핀’

8)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의 결혼수: 2001년 134명, 2002년 476명, 2003년 1,403명, 2004년 2,462명, 2005년 5,882명, 2006년 10,131명, 2007년 6,611명(통계청, 2007)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3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3%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Ŷ = 100.784 - 0.878×연령 - 0.220×정신건강 - 11.290×필리핀'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자녀갈등) 상담 욕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판단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은 타 국적 이주여성에 비해 복지욕구가 낮았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녀와 안정된 관계성을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자녀들 대상으로 가정생활만족도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에서의 국적별(중국, 일본, 필리핀 비교)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양순미, 2007)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p<0.05 **p<0.01 ***p<0.001

<표 8-5> 자녀관계(갈등)상담 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자녀관계 (갈등)상담 욕구 | (Constant) | 100.784 | 10.078 | | 10.000 | 0.000 |
| | 연령 | -0.878 | 0.266 | -0.191 | -3.304 | 0.001 |
| | 정신건강 | -0.220 | 0.096 | -0.132 | -2.282 | 0.023 |
| | 필리핀 | -11.290 | 5.095 | -0.128 | -2.216 | 0.028 |
| R(R ²) | 0.073(0.063)* | | | | | |

(6)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중국(한국계중국인)', '고졸', '연령', '시설접근성', '한국어 수준', '자국민모임참여' 변수가 단계적 방법을 통해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6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6.0%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Ŷ = 105.360 - 15.390×중국(한국계중국인) - 12.018×고졸 - 0.597×연령 + 1.944×시설접근성 - 0.154×한국어 수준 - 6.192×자국민모임참여'이다. 한국어 교육 욕구는 중국(한국계중국인)출신인 경우, 고졸학력인 경우에 낮았으며,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자국민모임에 참여한 경우에 한국어교육 욕구는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욕구수준이 증가하였다. 중국(한국계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학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교육욕구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국민모임에 참여한 경우에 본국출신 이주여성들로부터 한국어 습득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인해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한국어 교육욕구가 높았다. 이를 볼 때 지역의 복지자원을 인지할 때에 이와 관련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radshaw, 1977).

〈표 8-6〉 한국어교육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한국어교육욕구 | (Constant) | 105.360 | 7.536 | | 13.981 | 0.000 |
| | 중국(한국계중국인) | -15.390 | 4.197 | -0.217 | -3.667 | 0.000 |
| | 고졸 | -12.018 | 2.834 | -0.222 | -4.241 | 0.000 |
| | 연령 | -0.597 | 0.220 | -0.157 | -2.718 | 0.007 |
| | 시설접근성 | 1.944 | 0.690 | 0.161 | 2.817 | 0.005 |
| | 한국어 수준 | -0.154 | 0.065 | -0.142 | -2.364 | 0.019 |
| | 자국민모임참여 ⁹⁾ | -6.192 | 3.011 | -0.114 | -2.056 | 0.041 |
| R(R ²) | 0.260(0.244)* | | | | | |

*p<0.05 **p<0.01 ***p<0.001

(7) 문화체험 교육(요리, 예절 교육 등)

문화체험 교육(요리, 예절, 명절 등)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는 ‘중국(한국계중국인)’, ‘연령’, ‘시설접근성’, ‘고졸’, ‘자국민모임참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5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9.2%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101.624 - 15.102 \times \text{중국(한국계중국인)} + 1.795 \times \text{연령} + 1.795 \times \text{시설접근성} - 9.343 \times \text{고졸} - 6.023 \times \text{자국민모임참여} + 0.353 \times \text{신체건강}$ 이다.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는 다른 국적에 비해서 중국(한국계중국인)출신 이주여성이, 고졸학력의 여성들이 낮았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접근성이 좋을수록, 신체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자국민 모임에 참여한 경우에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한국계중국인)출신 여성들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언어적 장벽이 거의 없어 문화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졸학력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욕구에서 낮게 평가되어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복지서비스 참여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이 낮은 경우는 결혼기간이 짧아서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지역에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될수록 욕구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9) 가변수: 참여없음 1, 참여함 0 으로 처리되었음.

〈표 8-7〉 문화체험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문화체험 욕구 | (Constant) | 101.624 | 7.473 | | 13.598 | 0.000 |
| | 중국(한국계중국인) | -15.102 | 3.962 | -0.220 | -3.812 | 0.000 |
| | 연령 | -0.810 | 0.209 | -0.220 | -3.867 | 0.000 |
| | 시설접근성 | 1.795 | 0.690 | 0.153 | 2.600 | 0.010 |
| | 고졸 | -9.343 | 2.840 | -0.178 | -3.290 | 0.001 |
| | 자국민도입참여 | -6.023 | 3.021 | -0.115 | -1.994 | 0.047 |
| | 신체건강 | 0.353 | 0.145 | 0.231 | 2.424 | 0.016 |
| R(R ²) | 0.206(0.192)* | | | | | |

*p<0.05 **p<0.01 ***p<0.001

(8) 의료서비스(신체건강)

의료서비스(신체건강)욕구 영향요인의 회귀모형에서는 ‘고졸’, ‘연령’, ‘시설접근성’, ‘정신건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6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9.2%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103.588 - 11.196 \times \text{고졸} - 0.714 \times \text{연령} + 2.256 \times \text{시설접근성} - 0.233 \times \text{정신건강}$ 이다(p<0.01)

의료서비스 욕구는 고졸학력의 여성들에게서 감소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접근성이 우수할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 응답자일수록 욕구가 증가하였다.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시설접근성 역시 한국어나 문화체협의 경우처럼 인근에 서비스기관을 인지할수록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들이 신체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 욕구도 높았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신체건강 상담과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표 8-8〉 의료서비스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의료 서비스 이용 욕구 | (Constant) | 103.588 | 8.761 | | 11.824 | 0.000 |
| | 고졸 | -11.196 | 3.171 | -0.204 | -3.530 | 0.000 |
| | 연령 | -0.714 | 0.222 | -0.186 | -3.211 | 0.001 |
| | 시설접근성 | 2.256 | 0.770 | 0.185 | 2.929 | 0.004 |
| | 정신건강 | -0.233 | 0.088 | -0.167 | -2.665 | 0.008 |
| R(R ²) | 0.092(0.079)** | | | | | |

*p<0.05 **p<0.01 ***p<0.001

(9)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 상담(우울, 불안)욕구의 영향요인의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필리핀’ 변수가 단계적 방법에 의해 선택되었다(p<0.05). 2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8.6%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86.070 - 0.402 \times \text{정신건강} - 10.391 \times \text{필리핀}$ 이다. 정신 건강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았고,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타 국적에 비해 욕구가 낮았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족특성상 정신건강상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연구가 필요하겠다.

〈표 8-9〉 정신건강상담 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정신건강 상담욕구 | (Constant) | 86.070 | 5.932 | | 14.510 | 0.000 |
| | 정신건강 | -0.402 | 0.090 | -0.256 | -4.467 | 0.000 |
| | 필리핀 | -10.391 | 4.752 | -0.125 | -2.187 | 0.030 |
| R(R ²) | | 0.086(0.080)* | | | | |

*p<0.05 **p<0.01 ***p<0.001

(10) 취업교육

취업교육에 대한 복지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필리핀’, ‘중국(한족)’, ‘가족의 이해 정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3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9%로 나타났다.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hat{Y} = 78.668 - 15.587 \times \text{필리핀} - 11.444 \times \text{중국(한족)} - 0.152 \times \text{가족의 이해정도}$ 이다. 즉 필리핀, 중국(한족) 출신 이주여성에서 취업교육 욕구가 낮았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은 영어권 국가출신이라서 방과 후 영어교사나 학원 등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적에 비해서 취업교육 욕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한족) 출신 이주여성인 경우에는 취업교육 욕구가 낮은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나 아마 언어장벽이 높아서 취업교육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족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취업교육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가족의 이해정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10〉 취업교육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취업교육 욕구 | (Constant) | 78.668 | 4.621 | | 17.025 | 0.000 |
| | 필리핀 | -15.587 | 4.813 | -0.192 | -3.239 | 0.001 |
| | 중국(한족) | -11.444 | 4.800 | -0.142 | -2.384 | 0.018 |
| | 가족이해 | -0.152 | 0.069 | -0.128 | -2.198 | 0.029 |
| R(R ²) | 0.059(0.049)* | | | | | |

*p<0.05 **p<0.01 ***p<0.001

(11) 취업 알선

취업알선은 복지욕구 중에서 순위가 높은 욕구 중의 하나이다. 취업알선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연령', '중졸이하', '고졸', '필리핀', '지역소속감' 변수가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5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7.7%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 $\hat{Y} = 66.391 + 0.620 \times \text{연령} - 18.021 \times \text{중졸이하} - 11.205 \times \text{고졸} - 12.006 \times \text{필리핀} - 0.168 \times \text{지역소속감}$ '이다. 즉 취업알선 욕구는 중졸이하, 고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이 낮을수록 복지욕구가 강했다. 연령이 낮은 여성들은 자녀양육이나 보육의 욕구가 높은 반면에 연령이 높은 여성들은 취업알선 욕구가 높았다. 흥미로운 결과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이 낮을수록 취업알선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농촌도 과거처럼 유대감이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여전히 농촌이 도시보다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많다. 지역주민과 교류가 잦고, 유대감이 높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취업과도 연계되기 쉬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취업의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경로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연고자의 소개(34.9%)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취업경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은 취업교육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취업알선욕구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8-11> 취업알선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취업알선 욕구 | (Constant) | 66.391 | 9.406 | | 7.058 | 0.000 |
| | 연령 | 0.620 | 0.250 | 0.145 | 2.482 | 0.014 |
| | 중졸이하 | -18.021 | 5.291 | -0.233 | -3.406 | 0.001 |
| | 고졸 | -11.205 | 4.146 | -0.184 | -2.702 | 0.007 |
| | 필리핀 | -12.006 | 4.827 | -0.147 | -2.487 | 0.013 |
| | 지역소속감 | -0.168 | 0.084 | -0.119 | -2.013 | 0.045 |
| R(R ²) | 0.077(0.061)* | | | | | |

*p<0.05 **p<0.01 ***p<0.001

(12) 법률상담(국적, 이혼)

법률상담(국적, 이혼)욕구의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필리핀', '남편의 이해정도', '신체건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4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0.0%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 식은 $\hat{Y} = 84.494 - 0.519 \times \text{정신건강} - 13.314 \times \text{필리핀} - 0.191 \times \text{남편의 이해정도} + 0.322 \times \text{신체건강}$ 이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복지욕구가 낮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일수록, 또한 신체건강에 긍정적일수록, 남편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법률상담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욕구는 낮았다. 추정에 사용된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국적취득이나 이혼관련한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12> 법률상담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법률상담 욕구 | (Constant) | 84.494 | 6.848 | | 12.338 | 0.000 |
| | 정신건강 | -0.519 | 0.167 | -0.308 | -3.098 | 0.002 |
| | 필리핀 | -13.314 | 5.110 | -0.150 | -2.605 | 0.010 |
| | 남편이해 | -0.191 | 0.078 | -0.150 | -2.447 | 0.015 |
| | 신체건강 | 0.322 | 0.155 | 0.205 | 2.081 | 0.038 |
| | R(R ²) | 0.010(0.087)* | | | | |

*p<0.05 **p<0.01 ***p<0.001

(13)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국민을 위한 통역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 참여(예: 자국민을 위한 통역 도우미)에 대한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베트남’, ‘중졸이하’, ‘필리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4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8.0%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 $\hat{Y} = 75.234 - 0.256 \times \text{정신건강} + 11.985 \times \text{베트남} - 10.325 \times \text{중졸이하} - 10.719 \times \text{필리핀}$ ’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욕구가 높은 반면,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과 중졸이하 여성은 낮았다.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는 높아졌다.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은 수혜자로서의 이미지로 고착되기 쉬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인식과 평판을 제고하고,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다른 출신국보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줄 필요가 있으며 정신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8-13> 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자원봉사 활동참여 욕구 | (Constant) | 75.234 | 6.150 | | 12.233 | 0.000 |
| | 정신건강 | -0.256 | 0.090 | -0.164 | -2.839 | 0.005 |
| | 베트남 | 11.985 | 5.087 | 0.140 | 2.356 | 0.019 |
| | 중졸이하 | -10.325 | 4.610 | -0.132 | -2.239 | 0.026 |
| | 필리핀 | -10.719 | 4.868 | -0.130 | -2.202 | 0.028 |
| R(R ²) | 0.080(0.066)* | | | | | |

*p<0.05 **p<0.01 ***p<0.001

(14) 생계비 지원 서비스

생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는 ‘정신건강’, ‘자국민모임참여’, ‘신체건강’, ‘가족의 이해 정도’, ‘중졸이하’ 변수가 모형에 선택되었다(p<0.05). 5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2.1%이며, 변수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 $\hat{Y} = 90.077 - 0.601 \times \text{본인정신건강} + 8.992 \times \text{자국민모임참여} + 0.330 \times \text{신체건강} - 0.178 \times \text{가족의 이해정도} - 9.475 \times \text{중졸이하}$ ’이다. 즉 가족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계비 지원 서비스 욕구가 높았다. 또한 자국민모임참여가 없는 경우와 신체건강에 긍정적일수록 생계비지원 욕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졸이하 이주여성들은 생계비지원 서비스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의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욱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지 않아서 더욱 취약하다. 특히 가족의 이해정도가 낮으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의 실질

적인 소득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경제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8-14〉 경제적 지원욕구 영향요인의 선형회귀분석결과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경제적 지원욕구 | (Constant) | 90.077 | 7.080 | | 12.723 | 0.000 |
| | 정신건강 | -0.601 | 0.163 | -0.366 | -3.679 | 0.000 |
| | 자국민모임참여 | 8.992 | 3.664 | 0.139 | 2.454 | 0.015 |
| | 신체건강 | 0.330 | 0.148 | 0.216 | 2.226 | 0.027 |
| | 가족이해 | -0.178 | 0.078 | -0.140 | -2.284 | 0.023 |
| | 중졸이하 | -9.475 | 4.664 | -0.116 | -2.032 | 0.043 |
| R(R ²) | 0.121(0.105)* | | | | | |

*p<0.05 **p<0.01 ***p<0.001

5. 논의 및 결론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상담욕구는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 응답자에게서 복지욕구가 높은 반면, 고졸, 자국민모임의 참여가 없고, 중국(한국계중국인), 몽골 출신 이주여성은 복지욕구가 낮았다. 신체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복지욕구는 증가하였다. 한편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복지욕구는 정신건강이 나빠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몽골 출신 이주여성, 고졸 학력여성에서 복지욕구가 떨어졌다. 한편 신체건강이 좋고, 자국민모임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담욕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일수록 복지욕구를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몽골, 중국(한국계중국인) 출신 이주여성은 낮은 욕구수준을 보였다.

둘째,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욕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욕구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관계(자녀갈등)상담 욕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안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복지욕구가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타 국적여성에 비해서 욕구가 낮았다.

셋째, 가장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어 및 문화체험은 중국(한국계중국인) 출신 이주여성, 고졸 학력인 경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연령이 높고,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정신 건강 상담 욕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일수록 높았고,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은 타국적에 비해 욕구가 낮았다.

다섯째, 취업교육 욕구는 필리핀, 중국(한족) 출신 이주여성에서 취업관련 교육에 대한 복지욕구가

낮았다. 또한 가족의 이해정도가 낮을수록 복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알선 욕구는 중졸이하, 고졸, 필리핀 출신이주여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한 복지욕구를 보였다. 한편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이 낮을수록 취업알선욕구가 강했다.

그 밖에 법률상담은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에서 복지욕구가 낮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일수록, 또한 신체건강에 긍정적일수록 복지욕구는 높았으며, 남편의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욕구는 낮았다. 자원봉사활동참여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욕구가 높았으며, 생계비 지원에는 가족의 이해정도와 정신건강은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자국민모임참여가 없고,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복지욕구가 강했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국적은 서비스 제공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주여성의 국적별로 이용하는 서비스 욕구 등이 차별화되었다. 특히 베트남, 몽골,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이 다른 국적에 비해서 복지욕구가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이고, 몽골, 한국계 중국인이나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복지욕구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존 연구의 몽골출신이 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은 반면에 베트남 출신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설동훈·윤홍식, 2008),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복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존 실태조사결과와 일치한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8).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국적별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국적이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유무 등은 각 욕구별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욕구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적별로 분리하여 집단 간 욕구차이를 보는 것이 좀 더 면밀한 서비스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수가 국적별로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의 욕구가 가장 높은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의 영향요인 중 시설접근성과 자국민 모임참여 등이 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지할수록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bradshaw, 1977), 자조모임이 이주여성의 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김나영, 2007; 정주연, 2008) 복지욕구에도 자조모임의 정보교환과 정서적 교류 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전혜정, 2008; 박근우, 2007; 김오남, 2007) 본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은 복지욕구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문제행동상당,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당,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상당, 법률상담, 자원봉사활동참여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이 생활 전반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천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적 제언의 첫째는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여성들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제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 만큼, 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이주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서, 정신건강이 취약한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정확하게 사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취약하다. 기존의 사정도구로 정신건강을 스크리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에 주로 입국해있는 동남아시아, 러시아권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한국어와 문화체험 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남편의 문제행동상담, 부부관계 상담, 남편외의 가족관계 상담 등에도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응답자들의 10%이상을 넘지 못했다. 욕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층적인 부부 및 가족관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다양화, 언어의 제약으로 인한 서비스제한을 막기 위한 통역서비스의 확보,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교육 및 알선과 관련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른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비해서 취업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불만족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취업알선의 서비스가 이주여성들의 욕구와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의 학력, 건강상태, 가족들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취업의 선택의 폭과 기대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맞춤형 취업교육과 알선을 통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취업의 안정성은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경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출신국가별 이주여성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전체적으로 복지욕구가 높고, 하위복지욕구 영역별로 보면 부부관계 상담에는 한국계중국인, 몽골 출신 이주여성이 복지욕구가 낮고, 남편 문제행동 상담에는 몽골 출신 이주여성이 복지욕구가 낮았으며, 남편 외 가족관계 상담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욕구가 높고, 자녀관계 상담에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욕구가 낮았다. 특히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욕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았는데 이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이 영어권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도 많고,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이주했기 때문에 적응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듯 각 출신 국가별의 적응정도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중복이나 누수를 막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복지욕구의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서비스이용 여부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에 대한 카이검증을 한 결과 14개의 하위복지욕구 중 4개의 복지욕구(부부관계상담, 남편문제행동상담, 문화체험교육, 법률상담)가(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손병돈(2008)의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여부가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지서비스 이용 후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초점이 아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욕구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매우 중요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하위욕구별로 서비스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사례수를 고려하여 표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여부가 아닌 욕구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보완이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14개의 하위복지욕구에 대해 13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각 욕구별 관련변인들을 stepwise regression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소 방만하고, 그 결과로 심층적인 해석이 부족하다. 이는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14개의 서비스욕구를 보고자 해서 생기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투입되는 독립변수를 일부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기보다 집단간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 등을 확인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좀 더 명료한 설명력을 가지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영향요인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후 연구에서 설명력 있는 독립변수를 선별하여 투입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8. “한국·외국인부부 이혼 1년 새 40% 급증”. 4월 22일.
- 권복순 ·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세아.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가족관계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 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4.
- 김진희·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비교:전남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1):83-120
- 노유성,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우, 2007. “생태체계적 요인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5.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조사”.
- 설동훈·김윤태·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손병돈,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결정요인: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외국인 지원 관계자 초청 세미나 발표집, pp.15-49.
- 신승연·최승희·김성희, 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연구보고서 07-1
- 양순미·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순미,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태도 및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이영분·이상직·최승희·송인석, 2010. “농촌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농협문화복지재단.
- 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 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정기선,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9-103.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228-262.
- 중앙일보, 2008. “남편폭력으로 숨진 베트남 신부”. 3월 14일.
-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dshaw, J. 1977. The concept of social need. in Planning for social welfare. N. Gilbert & Specht(Eds.), Englewood cliff, NJ:Prentice-hall, pp. 290-296.

<인터넷자료>

농림부, 2006.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http://woman.maf.go.kr>.

- newsis. 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 복지타임즈. 2009. <http://www.bokjitime.com/>
- 서울신문. 200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24008018>
- 연합뉴스. 2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 SBS TV. 2010. http://news.sbs.co.kr/section__news/news__read.jsp?news__id=N1000719203.
- 여성신문. 2009. <http://www.womennews.co.kr/news/40769>.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kr/>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http://ebook.familynet.or.kr/20090413_131604.
- 중국망신문중심. 2010. http://china.naeil.com/news/news__view.asp?nnum=23612&cp=JB&type=0
- 충청일보. 2010.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36502>.
- 통계청. 2007. 2006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http://www.kostat.go.kr>.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Needs of the Rural Marriage Migrant Females

Lee, Young-Boon

(Konkuk University)

Choi, Seung-Hee

(Pyongtaek University)

Song, In-Seok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needs of the rural marriage migrant females.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rural marriage migration females using probability sampling and for the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was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welfare needs of counselling on husband' behavior problem were higher in cases of worse mental health, better physical health, younger age and lower participation in the meetings with her fellow countrymen. The welfare needs on the children raising and education were relatively higher among the migrant females from Vietnam and younger age. The needs on the job skills training were lower in cases of the migrant females from Philippines, China(the Chinese) and were higher in cases of lower level of family understanding. The welfare needs on the job placement were higher among older and lower community affinity, and were lower in cases of the migrant females from Philippin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welfare services should be differently provided to the migrant females in reflection of the age, education level, nationality and community resources. Further, the mental health screening test and treatment services for migrant females are needed since the welfare needs increase when the migration females have worse mental health condition.

Key words: rural, marriage-migrant females, welfare needs,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nationality

[논문 접수일 : 10. 04. 07, 심사일 : 10. 04. 19, 게재 확정일 : 10. 06. 18]